

# 전(傳)의 기록성과 문학성에 대한 검토

안 창 수\*

## < 목 차 >

- I. 머리말
- II. 사실의 기록
- III. 주관의 개입과 문학성
- IV. 사회적 관계의 추구와 문학성
- V. 맺음말

### Abstract

An essay on the property of record and literature in 傳(Jeon)

An Chang Su

傳(Jeon) was a style that described history. But it is also a style that have to be treated when we deal with the early narrative. For that reason, this paper has an object that examine the early style of 傳(Jeon) had been used for describing history, and find out the property of literature.

It is found out that 傳(Jeon) has the property of record and literature as an intrinsic attribute, and get ready for a lot of the property of literature at the <史記>. The property of literature was confirmed by what 傳(Jeon) had made itself a narrative structure, had created the world of fiction, had exposed social meanings through the human relations, and had created typical characters by the action and the emotional response of characters.

\* 밀양대학교 교수

## I. 머리말

전은 초기의 서사문학을 다룰 때 빠뜨릴 수 없는 문학의 한 양식이다. 전이 초기의 서사문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전은 본래 역사서술의 한 양식이었으므로, 전을 문학의 한 양식으로 보고 서사문학사에서의 역할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하나의 전의 문학적 갈래를 어디에 귀속시키느냐 하는 문제이다. 전은 교술 문학과 서사문학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전을 교술문학으로 보는 것은 전이 본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는 양식이라는 점에 근거하는 것이고, 서사문학으로 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 사건을 기술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양식적 특성, 즉 사실의 기록과 사건의 서술이라는 두 측면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의거하여 내린 결론으로 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전의 문학적 갈래를 따지는 일은 전을 문학으로 다룬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을 다룰 때 부딪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이 과연 문학적 양식인가 하는 점이고, 전이 문학의 한 양식이라면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문학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의 문학적 갈래 귀속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물음이 된다. 그리고 전을 문학으로 다루게 되는 문학성의 실체를 밝혀보는 것은 전의 문학적 특성을 찾는 문제가 되며, 이것은 전을 연구하는 데에도 몇 가지 기준점을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전이 지니고 있는 문학성의 실체를 밝혀 보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전은 중국에서 나타나 사마천에 의해 역사서술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므로, 전의 문학성을 찾아보는 작업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보는 데에서 일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전이 역사 기록물과 관계 맺었던 초기의 양상을 검토해 보는 데

에 목적이 있고, 전의 발생과 변화의 양상을 두루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다.

## II. 사실의 기록

전은 역사 기록물의 한 양식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전의 문학성을 검토해 보는 일은 역사 기록물이 문학과 맺고 있는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 전모가 보다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발달사적 측면에서 파악해 볼 때에도 역사 기록물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문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사(史)는 본래 일을 기록하는 사람인 사관(史官)을 의미하였으며, 사(史)라는 글자는 손으로 간(簡), 즉 죽간(竹簡)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관은 법제상의 기구인데, 사(史)라는 글자가 사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관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경우 주대(周代)에 이미 왕실과 제후국에 모두 사관이 있었다. 이 시기는 제정(祭政)이 분리되지 않아서 사관은 제사와 점복(占卜)의 일을 담당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고, 관부(官府)의 문서를 관장하며 사건을 기록하는 역할도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제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원시사회에서 사람들은 씨족이나 부족의 중요한 일들을 제의(祭儀)나 점복을 통해서 결정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사학자들은 역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sup>1)</sup> 사관이 역사를 기록한 일차적인 목적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잊지 않도록 문서화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에서 유래되었으므로,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서도 역사는 국가의 중요한 일이나 사건, 임금의 명령 등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을 최고의 의무로 삼았다. 이것은 역사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좌사(左史)는 사건을 기록하고 우사(右史)는 말을 기록했으니,

1) 高國抗, 《중국사학사 상》, 오상훈 외 2인 역, 풀빛, 1998, 49~55쪽.

말에 관한 기록은 《상서(尙書)》이고 사건에 관한 기록은 《춘추(春秋)》이다.”<sup>2)</sup>라는 기록은 초기의 사서(史書)가 임금의 주위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의 기록에 충실했다는 것은 사서에 사관(史官)의 주관적 생각이나 이념 등이 개입되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하기 이전에 엄청난 분량의 역사적 자료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된다.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세워져야 하며,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관(史官)이 일찍이 주(周)나라 때부터 제도상의 기구로 존재했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관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두어진 기구였다. 그러므로 역사기록의 초기에는 국가가 역사의 기록을 주관하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관이 사료(史料)를 선택하는 데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나 점복(占卜)의 일들이 기록되었고<sup>3)</sup>, 계절이나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변화가 기록되었으며<sup>4)</sup>, 임금이나 제후의 거동과 관련되어 있는 나라 안팎의 공식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었고,<sup>5)</sup> 그 외에도 종묘(宗廟)에 고(告)할 만한 국가의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었다<sup>6)</sup>. 이처럼 초기의 사서에는 다룰 수 있는 사건들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사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선택된 자료들을 기록하는데 있어도 사관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다.

2) 古者左史記事者 右史記言者 言經則尙書 事經則春秋(劉勰, 《文心雕龍》, 卷四).

3) 李宗侗, “中國 古代的 史官制度”(박한제 역, 《中國의 歷史認識》, 創作과 批評社, 1985)을 참고했음.

4) 《주례(周禮)》 卷六, 春官宗伯 下에 의하면 계절의 차례를 살피고, 일월성신의 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하는 전문적인 부서를 둘 정도로 자연현상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사관의 중요한 책무의 하나였다.

5) 주(周)나라에는 내사(內史)와 외사(外史)제도를 두어 임금과 관계된 국내, 외의 다양한 일들을 기록하게 했다(《주례(周禮)》 卷六, 春官宗伯 下).

6) 李宗侗, 앞의 글.

그러나 기(紀)와 전(傳)의 양식은 세월을 좇아서 사건을 서술하며, 문장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논술하지 않고 사실에 의거하여 써야만 한다. 먼 시대의 일은 같고 다른 것을 판별하기 어렵고, 사건이 쌓이게 되면 일이 시작되어서 종료되는 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진다.<sup>7)</sup>

위의 인용문은 유협(劉鋹)의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인용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명료하게 요약해 놓고 있다. 무엇보다 역사는 사관에 의해 제멋대로 쓰여져서는 안되고, 사실만을 충실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관은 “왕실의 도서관을 조사해서 책을 열어 찢어진 비단 조각을 찾아내고 상한 대쪽을 검사하는”<sup>8)</sup> 수고를 해서라도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은 초창기의 사서(史書)를 검토해 보는 데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갑골문(甲骨文)이나 청동기의 명문(銘文)과 같은 단편적인 기록물을 제외하고, 사관에 의해 쓰여진 초창기의 사서(史書)로는 《죽서기년(竹書紀年)》이나 《춘추(春秋)》와 같은 것이 있다. 《죽서기년》은 원본이 유실되어 진면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을 시간과 연계시켜 기록한 편년체 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간단한 기록일 뿐으로 한 구절이 하나의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아무런 해석도 덧붙이고 있지 않다”<sup>9)</sup>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을 기록했을 뿐 아무런 해석도 붙이고 있지 않으니, 《죽서기년》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7) 然紀傳爲式編年綴事 文非泛論 按實而書 歲遠則同異難密 事積則起訖易疎(劉鋹, 《文心雕龍》, 卷四).

8) 必闕石室 啓金櫃抽裂帛 檢殘竹(劉鋹, 위의 글).

9) 高國抗, 위의 책, 79쪽.

- 소왕(昭王) 원년(元年) 경자(庚子)년, 봄 정월(正月) 왕이 즉위하여 대궐문을 다시 세웠다.
- 6년, 왕이 순(郇)의 백(伯)에게 명령을 내렸다.
- 겨울, 12월 복숭아꽃과 자두꽃이 피었다.
- 14년, 여름 4월 항성(恒星)이 보이지 않았다.
- 가을, 7월 노(魯)나라 사람이 그 임금 제(宰)를 시해(弑害)했다.
- 16년, 초(楚)나라를 정벌하러 한수(漢水)를 건너다 외뿔난 큰 들소를 만났다.
- 19년, 봄 혜성이 자미성을 범했다.<sup>10)</sup>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죽서기년》은 시간을 먼저 명시하고 여기에 맞추어서 사건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국가간의 전쟁도 간단한 한 마디의 말로 드러내고 있어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사실만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는 본래 노(魯)나라의 역사서였던 《춘추》를 공자가 자신의 관점에 맞추어 새롭게 편찬한 것으로 후대에 역사를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사서이다. 《춘추》는 사실(사건)을 기록할 때 그 일이 행해졌던 날(日)에 따라 기록하고, 날은 달(月)에 따라 기록하며, 달은 계절에 따라 기록하고, 계절은 임금의 재위(在位) 시기에 연결시켜 기록하였다<sup>11)</sup>. 이처럼 명확한 시간관념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춘추》는 편년체 사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일어났던 사건들의 윤곽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체적으로 요약하여 한 두 개의 문장으로 드러내는 단편적인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은공(隱公) 원년(元年) 봄. 왕의 정월.
- 3월, 은공이 주(紂)나라의 의부(儀父)와 멸(蔑)에서 동맹을 맺었다.

---

10) 昭王 元年庚子春正月 王卽位 復設象魏 六年王錫郇伯命 冬十二月桃李華 十四年夏四月彗星不見 秋七月魯人弑其君宰 十六年伐楚涉漢遇大兕 十九年春星孛于紫微 (《竹書紀年》 卷二).

11) 春秋者 魯史記之名也 記事者 以事繫日 以日繫月 以月繫時 以時繫年(杜預, 春秋左氏傳序).

- 여름, 5월에 정백(鄭伯)이 단(段)을 언(鄆)에서 싸워 이겼다.
- 가을, 7월에 천왕(天王)이 재(宰)의 관직에 있는 환(桓)을 시켜서 혜공(惠公)과 중자(仲子)의 장의 용품을 보내왔다.
- 9월, 송(宋)나라 사람들과 숙(宿)에서 동맹을 맺었다.
- 겨울, 12월에 제백(祭伯)이 왔다.
- 공자 익사(益師)가 죽었다.<sup>12)</sup>

위의 인용문은 《춘추》에 있는 노(魯)나라 은공(隱公) 원년(元年)의 기록이다. 《춘추》가 노나라 은공(隱公) 원년(B.C. 722)에서 애공(哀公) 14년(B.C. 481)까지 242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니, 첫머리에서 발췌한 위의 기록은 《춘추》가 취하고 있는 역사기록의 방식을 잘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춘추》도 《죽서기년》과 같이 시간을 좇아서 일어났던 사건의 윤곽만을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른 사건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와 동맹을 맺은 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죽서기년》이나 《춘추》와 같은 초창기의 역사서는 역사적 사건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시간적 순차에 의해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하며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을 때, 역사는 연대기적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III. 주관의 개입과 문학성

역사 기록의 초기에 사관은 사료를 선택하는 문제나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

---

12) 元年春 王正月 三月 公及弒儀父盟于蔑 夏五月 鄭伯克段于鄆 秋七月 天王使宰桓來歸惠公仲子之賵 九月及宋人盟于宿 冬十有二月 祭伯來 公子益師卒(《春秋》, 隱公 元年).

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관은 사실의 전달이라는 목적 외에 역사적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제후(諸侯)들이 나라를 세우자 각기 자기 나라의 사서(史書)를 갖고, 착한 일을 표창하고 악한 일을 반성시켜 좋은 기풍을 세웠다.”는<sup>13)</sup> 기록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관은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다.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관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나 이념에 의해 사건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사관은 더 이상 사건의 충실한 기록자로 머무르지 않는다. 사관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실을 다시 정리하고, 사건의 원인을 찾아서 드러내려 하며, 사건이 진전되어 간 과정과 결과가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만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연대기적 방법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새로운 세계였다. 그러므로 사관의 주관이 개입되어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기울여지며, 이것은 역사를 기술하는 기술방법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초기의 사서 가운데 하나인 《춘추》를 편찬한 공자는 글을 쓸 때에 “있는 그대로 기록하며 마음대로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는<sup>14)</sup> 입장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춘추》를 편찬함에 있어서 공자는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공자는 국가로부터 임명된 사관이 아니었기에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이념에 의해 사서를 편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부(上大夫) 호수(壺遂)가 물었다. “공자는 어찌하여 《춘추》를 지으셨을까요?” 태사공(太史公)이 말했다. 나는 동중서(董仲舒)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周)의 도가 쇠퇴하여 못쓰게 되어, 공자가 노(魯)나라의 사구(司寇)가 되자 제후(諸侯)들은 그를 해쳤고 대부(大夫)들은 그를 방해했다. 공

13) 諸侯建邦 各有國史 彰善癉惡 樹之風聲(劉勰, 앞의 글).

14) 《논어(論語)》, 述而.



자는 자신의 말이 쓰여지지 않고 도(道)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알고, 242년 동안의 사적(事蹟)을 비판하여 이것으로써 천하의 의표(儀表)로 삼았다.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천자라 하여도 깎아 내리고, 제후를 물리치고, 대부를 성토함으로써 왕도(王道)를 달성하려 했을 따름이다.”<sup>15)</sup>

위의 인용문에 나와 있듯이 공자는 《춘추》를 편찬하며 왕도(王道)를 실현하고 유교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이에 따라 공자는 자신의 이념적 기준에 의거해서 “새겨 넣을 것은 새겨 넣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여(筆即筆 削則削)”<sup>16)</sup>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를 새롭게 정리하였다. 242년 동안의 사적을 비판하여 이것으로써 천하의 의표를 삼아서 천자를 깎아 내리고 제후를 물리치고 대부를 성토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춘추》는 공자의 이념에 의해서 새롭게 편찬되어 공자의 사상을 보여주는 공자의 저술이 되었고, 공자는 역사가 가치중립적인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 데에 머무르지 않게 하였다.

역사적 사실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공자는 은휘(隱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지만 공자 자신의 생각을 행간(行間)에 숨겨서 제시하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공자는 말(言語)을 가려서 사용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자신의 이념적 기준에 맞추어 해설하려 하였다. 직위(職位)나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어 임금 답지 못하고 신하답지 못하며 우애롭지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행위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과 같은 것들이다.

예컨대, 노(魯) 은공(隱公) 원년 5월에 “정백(鄭伯)이 단(段)을 언(鄆)에서 싸워 이겼다.”는 기록이 있다. 그냥 보아서 이것은 객관적 사실의 기록처럼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백(鄭伯)은 정(鄭)나라 임금인 장공(莊公)을 지칭하고,

15) 上大夫壺遂曰 昔孔子何爲而作春秋哉 太史公曰 余聞董生曰 周道衰廢 孔子爲魯司寇 諸侯害之 大夫壅之 孔子知言之不用 道之不行也 是非二百四十二年之中 以爲天下儀表 貶天下 退諸侯 討大夫 以達王事而已矣(司馬遷, 《史記》 卷一百三十, 太史公自序).

16) 司馬遷, 《史記》 卷四十七, 孔子世家.

단(段)은 그의 아우 공숙단(共叔段)을 지칭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임금을 백(伯)이라 칭하고, 그 아우도 아우(弟)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드러냄으로써, 나라를 두고 형제끼리 싸운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는 속사비사(屬辭比事)라고 불리어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함께 묶여질 수 있는 일련의 사건을 연대순에 따라서 나열해 놓음으로써, 사건이 진행되어 간 경위를 통해 포폄호오(褒貶好惡)의 숨은 뜻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시집을 와서도 제(齊)나라 군주인 오빠와의 부정한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노(魯)나라 환공(桓公)의 부인 강씨에 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기록해 놓아 강씨의 부정한 행동을 비난하고, 강씨의 부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약소국 노나라의 비애를 드러내려 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은휘의 방법은 사건을 기록할 때 어휘를 다르게 사용하는 정도에 머무르거나, 속사비사(屬辭比事)처럼 사건의 경위를 드러내더라도 객관적인 사실들을 연대순에 따라 단편적으로 나열해서 보여주는 데 머무르고 있을 뿐 의미는 행간에 감추어서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춘추》는 사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어 편찬되어진 저술임에도 불구하고, 은공(隱公) 원년의 기록이 보여주는 것처럼<sup>17)</sup> 시간적 순차에 따라 객관적인 사건들을 한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기록해 놓은 연대기적 기록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춘추》가 노(魯)나라의 역사서인 《춘추》를 대본으로 하고 있었고, 공자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마음대로 지어내지 않는다(術而不作)는 원칙에 따라 가급적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자는 《춘추》를 편찬하며 원본은 단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자기 식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 아니었다. 공자는 노나라의 사서인 《춘추》를 대본으로 해서 사실의 진위(眞僞)를 조사하고 예법(禮法)을 따져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잡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원본을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sup>18)</sup> 이런 점에서 《춘추》는 공자에 의해 편찬되었음에도 그 당시 각 나라의 사서(史書)들

17) 주 12)를 참조할 것.

18) 仲尼因魯史策書成文 考其眞僞 而志其典禮 上以遵周公之遺制 下以明將來之法 其教之所存 文之所害 則刊而正之 以示勸戒 其餘則皆即用舊史 史有文質 辭有詳略 不必改也(杜預, 春秋左氏傳序).

이 취하고 있던 보편적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은휘의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행간에 숨겨서 드러내거나, 사건을 한 두 개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은 《춘추》의 기록을 통해서 공자가 드러내려 했던 포폄(褒貶)의 의미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 공자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은 제자들조차 《춘추》에서 드러내려 한 공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혼선을 일으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정도로<sup>19)</sup> 《춘추》는 의미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게 되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 나온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저자의 문제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춘추좌씨전》은 좌구명(左丘明)이 편찬한 것에 다른 사람들의 가필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좌구명은 공자로부터 《춘추》를 받아서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서 분명하게 하고, 《춘추》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리(義理)를 밝혀 드러내었으며, 일의 발단을 찾고 결과를 살펴서 그 자세한 부분까지 밝히고자 하였다.<sup>20)</sup> 이로 말미암아 전(傳)은 경전의 뜻을 옮겨 받아 후세에 전하는 양식이 되었다.<sup>21)</sup>

그런데 《춘추》의 은미(隱微)한 뜻을 밝히고, 일의 시종을 찾아 그 자세한 부분까지 밝혀서 드러내고자 했던 데에서 《춘추좌씨전》은 《춘추》와는 다른 서술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춘추좌씨전》은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주는 해설서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 원년 봄, 왕의 정월. 정월은 주(周)나라 달력으로의 정월을 지칭하는 것이다. 은공이 즉위했다고 적지 않고 원년이라고만 한 것은 섭정(攝政)이었기 때문이다.
- 삼월, 은공이 주(鄭)나라의 의부와 멸(蔑)에서 동맹을 맺었다. 주(鄭)나라 임

19) 七十子之徒 口受其傳指 爲有所刺譏褒諱挹損之文辭 不可以書見也 魯君子左丘明懼弟子人人異端 各安其意 失其真 故因孔子史記具論其語 成左氏春秋(司馬遷, 《史記》 卷十四, 十二諸侯年表).

20) 左丘明受經於仲尼 以爲經者不刊之書也 故傳或先經以始事 或後經以終義 或依經以辯理..... 原始要終 尋其枝葉 究其所窮(杜預, 앞의 글).

21) 傳者轉也 轉受經旨以授於後(劉勰, 앞의 글).

금의 이름은 극(克)이다. 천자(周王)의 명에 의해 정식으로 계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위를 적지 않았다. 의부(義父)라고 부른 것은 그를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은공이 섭정의 지위에 있으며 주(紂)나라와 우호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멸(蔑)에서 동맹을 맺은 것이다.<sup>22)</sup>

위의 인용문은 해석과 설명으로 되어 있다. 《춘추》에는 “원년 봄, 왕의 정월”이라고 되어 있고, “삼월, 은공이 주의 의부와 멸에서 동맹을 맺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즉위했다고 적지 않고 원년(元年)이라고 적을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밝히고 있고, 장공이 주(紂)나라와 동맹을 맺게 되었던 원인과 이유도 찾아서 설명하고 있다. 《춘추좌씨전》이 사실의 원인을 밝히고 이치를 따져서 설명하고 해설하는 해설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공자가 《춘추》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의리(義理)가 무엇인가를 밝히려 했던 데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춘추》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간단한 한 마디의 말로 요약되어 있어서 전후맥락과 일이 진행되어간 과정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춘추좌씨전》은 사건의 시작과 결말을 찾아서 밝히는 가 하면 일이 진행되어간 과정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춘추좌씨전》이 단순한 해설서에 머무르지 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 사실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해서 묶어 놓은 연대기적 기록물에서 벗어나 서사적 역동성을 확보하게 하였다.

예컨대, 《춘추》 은공(隱公) 원년의 기록에는 “여름, 5월에 정백(鄭伯)이 단(段)을 연(鄆)에서 싸워 이겼다”는 기록이 있었다. 이것은 정(鄭)나라의 장공(莊公)과 동생 공숙단(共叔段) 사이에서 벌어졌던 권력다툼이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크고 중요한 사건이 한 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서 전후맥락과 진행과정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춘추좌씨전》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장공(莊公)의 어머니가 공숙단(共叔段)을 편애하면서

22) 元年春 王周正月 不書即位攝也 三月公及邾儀父盟于蔑 邾子克也 未王命 故不書爵 曰儀父 貴之也 公攝位而欲求好於邾 故爲蔑之盟(左丘明, 《春秋左氏傳》).

사건이 발단되었다는 것을 추적해서 보여준 다음 부모 자식 사이에 잘못 얽혀 있던 애정이 형제간의 권력다툼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전쟁으로 비화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전쟁을 통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다진 장공이 사건의 배후 조정인물이었던 어머니와 의절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역사가 단편적인 사실들을 시간의 순서에 맞추어 모아놓은 연대기적 기록물에 머무르게 될 때 역사를 기록하는 중심축은 시간이 된다. 역사적 사건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될 수 있을 뿐이다. 이 때 사건들은 개별적인 것으로 해체되어 버린다. 하나의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역사는 개별적으로 해체되어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건들을 단지 시간적 순차에 따라 일정한 시간 단위로 묶어서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춘추좌씨전》은 사건이 시작되어서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자 사건은 일정한 서사적 줄거리를 형성하였고, 한 단위의 사건이 시작되어서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거치게 되는 서사적 완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경우 사건은 개별적인 것으로 해체되지 않고 하나의 결론을 향해 서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유기적(有機的)인 관계로 연결되게 된다. 이것은 역사의 기록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확인해두기 위한 사실확인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관점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확인의 기능은 역사기록의 일차적인 목적, 즉 집단의 중요한 일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둔다는 목적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어간 과정을 추구하게 되자, 역사의 기록은 서사적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서사적 줄거리와 완결성을 추구하며 사건과 사건이 유기적으로 관계 맺도록 하고 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 이제 문학성을 역사 기록의 중요한 요소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이야기는 인물들의 행위로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춘추좌씨전》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인물들이 반응하고 대처하는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대체적인 줄거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과는 대조되

는 방식이다. 줄거리만 개략적으로 진술될 때, 이것은 사실을 기술하는 기사문(記事文)의 형태를 띠게 되며, 이 경우 인물들의 행위는 사실에 파묻혀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 줄거리가 제시되자 행위가 전면으로 부각되게 되었다.

영곡(穎谷)의 국경을 지키는 관리인 영고숙(穎考叔)이 이 말을 듣고는 장공(莊公)에게 선물을 바쳤다. 장공은 이에 영고숙에게 음식을 내려주었는데, 영고숙은 고기를 먹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장공이 그 까닭을 물으니 영고숙이 대답하였다.

“소인에게는 모친이 계시는데 늘 변변치 못한 음식만 드시고 계실 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지 못하셨습니다. 청컨대 이것을 어머니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장공은

“그대에게는 어머니가 계셔서 음식을 드릴 수 있는데 나는 홀로 아무도 없구나.”

하였다. 영고숙이 물어보았다.

“감히 여쭙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장공이 그 말을 한 연고를 말하고 아울러 어머니와 의절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영고숙이 말했다.

“임금님께서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만약 지하수가 있는 곳까지 땅을 파고 그 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신다면 누가 그르다고 하겠습니까?”

이에 장공이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했다.<sup>23)</sup>

위의 인용문은 정(鄭)나라의 장공이 아우인 공숙단을 언(鄆) 지방에서 격파한 뒤, 의절하였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줄거리로 요약하여 진술한다면 이것은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하기 위한

23) 穎考叔爲穎谷封人 聞之 有獻於公 公賜之食 食舍肉 公問之 對曰 小人有母 皆嘗小人之食矣 未嘗君之羹 請以遺之 公曰 爾有母遺 繄我獨無 穎考叔曰 敢問何謂也 公語之故 且告之悔 對曰 君何患焉 若闕地及泉 隧而相見 其誰曰不然 公從之(《春秋左氏傳》, 隱公).

기사문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인물들의 행위로 드러나자 이 대목에는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 만들어지며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생동감이 넘쳐나고 있다.

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장면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허구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허구의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은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 경우 허구는 사실에 대한 비사실(非事實)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허구에 대해 잘못된 논의 가운데 하나는 허구를 사실과 비사실의 논쟁으로 단순화시켜버리는 것이다. 허구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 사실을 진술하여 서술하지 않고, 흡사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장면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며, 단편적인 사실을 연대순에 맞추어 기록하지 않고 서사적 구조물로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역사 기술의 이러한 변화는 독자들의 반응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 시작에서 종결까지 이어지는 서사적 줄거리와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사건의 진행과정과 결말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야기의 내용이 인물들의 행위에 의해 드러나며 이것은 독자들에게 충격적 사건이 벌어진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한 흥분과 감동을 준다. 이것은 역사서가 사실과 교훈을 알게 해주는 인식의 기능에 감동의 기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대감과 긴장감을 갖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역사의 기록물이 문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처럼 서사적 구조와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고, 독자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춘추좌씨전》은 역사의 기록물이면서 풍부한 문학성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춘추좌씨전》이 역사 산문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획을 그었으며 후대의 산문문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sup>24)</sup> 것도 이 때문이다. 전(傳)은 《춘추좌씨전》에서 경전을 해설하기 위해 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역사의 기록물이 문학과 만

24) 김명덕 외 2인 편, 《중국문학사 상》, 청년사, 1990, 51쪽.

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 IV. 사회적 관계의 추구하고 문학성

《춘추좌씨전》은 《춘추》를 대본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제로는 연대기적 기록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편년체(編年體) 사서였다. 서사적 줄거리와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를 통해서 연대기적 기록물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서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지만, 이것은 부분 부분마다 한 마디로 요약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는 사건의 발단을 찾고 결과를 살피며 그 자세한 부분까지 밝혀보려 했던 데에서 나타난 결과이었을 뿐이다. 《춘추좌씨전》에 나타난 역사기술의 변화가 편년체적 기술방법의 문제를 깨닫고, 이것을 바꾸려는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역사에서의 사건은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다양한 사건들이 한 데 얽혀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건들을 개별적인 것으로 해체시킨 뒤 이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해 놓는 것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 개별적인 사건들을 집합적으로 모아놓은 연대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사마천이다.

서백(西伯)은 갇힌 몸이 되어 《주역》을 연역하였고, 공자는 곤란한 처지를 당하여 《춘추》를 지었습니다. 굴원(屈原)은 쫓겨가서 <이소>를 썼고, 좌구(左丘)는 실명한 뒤 《국어》를 지었습니다. 손자(孫子)는 발을 잘리고 《병법》을 편찬하였고, 여불위(呂不韋)는 촉(蜀)에 유배되어 세상에 《여람》을 남겼습니다. 한비자(韓非子)는 진(秦)에 체포되어 <세난>, <고분>을 저술하였으며, 《시경》의 300편 시는 대개 성현이 발분하여 지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가슴 속에 맺힌 바가 있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통할 수 없었기에 지나간 일을 서술하여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알아줄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좌구명



과 같이 눈이 없고 손자와 같이 발을 잘린 사람은 마침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서책(書策)을 써서 자신의 분한 생각을 펴고 이론적인 문장을 세상에 남겨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도 감히 겸손치 못하게도 무능한 문장에 스스로를 맡기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천하에 흩어진 구문(舊聞)을 수집하여 행해진 일을 대략 상고하고, 그 처음과 끝을 정리하여 홍망성패의 원리를 살펴 모두 130편을 저술하였습니다. 저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꿰뚫어서 일가(一家)의 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sup>25)</sup>

위의 인용문은 사마천이 자신의 심경을 임안(任安)에게 토로한 글에서 따온 것으로서, 여기에는 그가 《사기》를 편찬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함께 드러나 있다. 먼저 사마천은 옛날 위대한 저작을 남긴 사람들을 예로 들어 《사기》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옛 사람들은 모두 풀리지 않는 울분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이것을 토로하기 위해 저술에 몰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마천 또한 이능(李陵)의 사건에 연루되어 궁형을 받았던 참담한 과거를 갖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그에게 생각할 때마다 맘이 등줄기를 적시는 치욕과 수치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울분을 딛고 오히려 발분하여 《사기》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마천과 옛날 위대한 저작을 남긴 사람들이 풀리지 않는 울분을 가슴에 품게 되었던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마천이 예로 들었던 문왕(文王)과 공자, 굴원(屈原), 손자(孫子), 여불위(呂不韋), 한비자(韓非子)뿐만 아니라 사마천 자신도 사회적 관계에서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를 지으며 “관계와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

25) 蓋西伯拘而演周易 仲尼厄而作春秋 屈原放逐乃賦離騷 左丘失明厥有國語 孫子膑脚兵法修列 不韋遷蜀世傳呂覽 韓非囚秦說難孤憤 詩三百篇 大氏賢聖發憤之所爲作也 此人皆意有所鬱結 不得通其道 故述往事思來者 及如左丘明無目 孫子斷足 終不可用退 論書策以舒其憤思 垂空文以自見 僕竊不遜近 自託於無能之辭 網羅天下放失舊聞 考之行事 稽其成敗興壞之理 凡百三十篇 亦欲以究 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漢書》 卷六十二, 報任安書).

다.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 옛날과 지금의 변화를 꿰뚫어 일가를 이루겠다”는 말은 하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실상을 추적해 보고, 나아가 옛날과 지금에 나타난 변화의 과정, 즉 역사의 전개과정을 추적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관계를 탐구하고 변화를 꿰뚫어보겠다는 것은 역사의 의미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저술의 동기가 목적을 결정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무엇보다 동기가 목적을 결정하면서 사마천은 인간들의 관계를 탐구하여 변화를 꿰뚫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천의 편찬 목적은 역사를 기술하는 과거의 기술방법, 즉 사건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는 편년체의 방법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편년체는 사건을 개별적인 것으로 해체시켜서 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인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들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의 망을 알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천은 이 때문에 《사기》에서 기전체(紀傳體)라는 새로운 역사 기술의 방법을 창안해 내었다. 《사기》는 ‘본기(本紀)’, ‘표(表)’, ‘서(書)’, ‘세가(世家)’, ‘열전(列傳)’의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기전체는 이 가운데 ‘본기’와 ‘열전’의 끝 자를 따온 것이다. 그런데 다섯 부분 가운데 주요한 역사 사건들의 시간적 위치를 표시해 놓은 ‘표’와 당시의 전장(典章), 천문, 지리, 예술, 경제 등에 대해 논평하고 서술한 ‘서’를 제외한 나머지가 인간들에 대한 저술이다. 양적으로 보아도 이 부분은 전체 130권 중에서 112권에 해당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사기》의 무게 중심이 이 곳에 두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기’는 최고 통치권자인 제왕들에 관한 전기이고, ‘세가’는 제후들에 관한 전기이며, ‘열전’은 제왕과 제후를 제외한 사회 각층의 유명 인물들에 관한 전기이다. 이것은 사마천이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역사가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 즉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마천은 역사 전개의 이런 관점을 북극성을 중심으로 못 별들이 돌고 있는 천체의 운행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관계를 탐구하고 변화를 꿰뚫어보는 것은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려는 지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리고 사실과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천하의 산실된 구문(舊聞)을 수집하여 행해진 일을 상고하는(網羅天下放失舊聞 考之行事)”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을 엄격하게 규명하여 있는 그대로의 일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작가의 자의적인 조작을 배격하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한다는 역사의 기록성에 충실하려는 것이다.

역사의 기록성은 사관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런데 사마천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 《사기》를 저술했다고 했다. 이것은 주체하지 못하는 격앙된 감정, 즉 정서적 반응이 저술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사마천이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 도처에서 탄식하고 비탄에 잠기기도 하며 분노에 몸을 떨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사마천은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며, 자신의 느낌을 독자들도 함께 느끼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실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정서적 반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기》는 기록성과 문학성을 두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사실을 대상으로 관계와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사기》를 편찬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동기가 목적을 규정하면서 사마천은 인간들의 관계를 탐구하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서술방법을 강구하였고, 이 때문에 《사기》는 서술의 과정에서 문학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열전(列傳)’은 제왕과 제후를 제외한 사회 각 계층의 유명 인물들에 관한 전기로서, 분량으로도 《사기》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열전’에 대한 사마천의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대단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열전’은 《사기》를 지은 동기와 목적이 어떻게 서술의 방법을 변화시켰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백이열전(伯夷列傳)’은 열전 70권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글이다. 그러므로 ‘백이열전’에는 70권의 열전을 지으며 사마천이 드러내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든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백이열전’에서 사마천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를 의인(義人)이라 칭하고, 그들이 어질고 고결하게 살았으나 굶어죽었

다고 하며,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sup>26)</sup>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도 화를 입고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귀가 자손만대에 이어진다면, “이른바 천도(天道)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sup>27)</sup>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은 조정의 잘못된 기풍을 바로 잡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이능을 변호하다가 오히려 궁형(宮刑)을 당하는 참담한 좌절을 경험했던 사마천이 하늘에 던지는 비통한 질문이기도 했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는 하늘의 법칙이 언제나 지켜진다면 세상살이는 간편하게 된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법칙은 종종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고민이 있고 사는 것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도(天道)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천도는 옳은 것인가? 하는 질문은 사마천에게 주어진 필생의 화두(話頭)가 되었던 것이다. 사마천이 ‘백이열전’에서 밝혀보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며, 이것은 열전 70권을 관류하는 화두인 것이다.

천도의 존재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경험을 통해서 입증될 수밖에 없는 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서로 얹혀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마천은 ‘열전’에서 교우(交友)관계, 군신(君臣)관계, 상하관계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관계에 나름대로 반응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기》 卷八十六 ‘자객열전(刺客列傳)’에는 형가(荊軻)라는 자객의 전(傳)이 실려 있다. 형가의 전에는 연(燕)나라의 태자 단(丹)과 진(秦)나라의 임금 정(政)과의 관계, 태자 단(丹)과 연나라의 현자(賢者)인 전광(田光)과의 관계, 전광과 형가와와의 관계, 형가와 태자 단과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형가의 전은 이와 같은 관계의 망 속에서 친구인 전광과의 신의(信義)를 지키고, 친구의 충성을 이루게 하며, 불의(不義)한 임금인 진나라의 정(政)을 자

26) 天之報施善人 其何如哉(《史記》 卷六十一, 伯夷列傳).

27) 儻所謂天道 是也非也(《史記》 卷六十一, 앞의 글).

살(刺殺)하기 위해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자객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형가는 신(信), 충(忠), 의(義)의 세 가지 덕목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형가의 행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전(傳)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전(傳)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관계의 망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가는 자객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형가의 행동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건들이 일정한 의미를 드러내도록 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인간들의 관계를 파악해 보려 했던 데에서, 사마천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수집해서 이들이 일정한 서사적 줄거리를 갖도록 배열하고, 일정한 의미를 드러내도록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하나의 서사적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역사서술의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사건들을 유기적으로 관계 맺도록 하여 일정한 서사적 줄거리와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춘추좌씨전》에서도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러나 《춘추좌씨전》은 사건이 발단되어서 종결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려 했지만, 《사기》는 인간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이에 반응하는 개인의 삶을 보여주려 했던 데에서 두 사서에 나타나는 서사적 줄거리와 구조물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사마천은 인간들의 관계를 탐구하며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함께 드러내려 했던 데에서 역사서술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다. 사마천은 “정의를 지키고 뛰어난 기개를 가졌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천하에 공명을 세운 이들을 위해 70권의 ‘열전’을 만들었다”고<sup>28)</sup> 했다. 발군(拔群)의 기개를 갖고 정의를 지키며 천하에 공명을 이룬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족하다. 사마천도 이런 인물들의 삶에 감동했기에 이들의 전을 지었던 것이다.

사마천이 감동한 것은 인물들의 삶, 즉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들의 행위에 감동한 것이다. 그래서 인물들의 관계를 탐구하며 사마천

28) 扶義倣儔 不令己失時 立功名於天下 作七十列傳(司馬遷, 《史記》 卷百三十, 太史公自序).

은 인물들의 행위에 공감하거나 분개하고, 그들이 행위가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려 했다.

태자와 빈객 등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흰 의관(衣冠)을 입고 그를 전송하였다. 역수(易水)에 이르러 도조신(道祖神)에게 제사하고 길에 올랐다. 고점리(高漸離)가 축(筑)을 쳐고 형가가 이에 화답하여 노래를 불렀는데 그 소리가 비창하여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형가가 다시 앞의 노래를 불렀다.

바람소리 쓸쓸하고 역수(易水)는 차구나  
장사(壯士)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우성(羽聲)으로 비분강개하게 노래하자 사람들은 모두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은 치솟아 관(冠)을 찢었다. 이렇게 해서 형가는 수레를 타고 떠나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sup>29)</sup>

위의 인용문은 형가가 사지(死地)로 떠나며 사람들과 이별하는 장면이다. 여기에는 죽음에 임하는 형가의 반응이 잘 드러나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비장한 심정을 드러내는가 하면 사사로운 감정과 흔들리는 마음을 지그시 억누르고는 마침내 결연한 자세로 떠남에 있어서는 서릿발같은 매서움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형가의 행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어서, 형가를 배웅하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형가의 비분강개함을 함께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의 어둡고 비장한 분위기는 형가를 바라보며 느끼는 사마천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사(李斯)는 초(楚)나라 상채(上蔡)의 사람이다. 젊어서 지방의 하급관리가 되었을 때, 관청의 변소에서 쥐(鼠)들이 불결한 것을 먹다가 사람이나 개가 접

29) 太子及賓客知其事者 皆白衣冠以送之 至易水之上 既祖取道 高漸離擊筑 荊軻和而歌 爲變徵之聲 士皆淚涕泣 又前而爲歌曰 風蕭蕭兮易水寒 壯士一去兮不復還 復爲羽聲 愴慨 士皆瞋目 髮盡上指冠 於是荊軻就車而去 終已不顧(司馬遷, 《史記》卷八十六, 刺客列傳).

근하면 자주 놀라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사가 창고에 들어가니 창고에 있는 쥐는 쌓아놓은 곡식을 먹으며 큰 건물 안에 살고 있으므로 사람이나 개에게 위협을 받을 근심이 없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고 이사는 탄식하여 말했다.

“인간의 현(賢) 불초(不肖)는 비유하면 이들 쥐와 같다. 스스로 거처하는 곳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에 순경(荀卿)을 좇아서 제왕의 학술을 공부했다.<sup>30)</sup>

위의 인용문은 이사(李斯)의 전(傳) 첫머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사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에는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일상적 삶에서 인생의 적나라한 단면을 포착해 내는 이사의 예지가 번뜩이고 있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새로운 인생행로를 개척해 가는 과단성이 돋보이고 있다.

사소한 일상적 사건에서조차 삶의 중요한 지표를 발견해 내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과감하게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버리는 이사의 예지와 결단력은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었다. 이사의 전에는 이외에도 그가 얼마나 상황인식이 빠르고, 그로 인해 어떻게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거듭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사마천이 그러한 이사의 행위에 감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사마천은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여 뜻을 이루었기에 이사의 전을 쓴다”고<sup>31)</sup> 하며, 예지와 결단력이 빛나는 이사의 행위에 감동해서 그의 전을 지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형가와 이사의 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사마천은 인물들의 전을 쓰며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마천의 정서적

30) 李斯者 楚上蔡人也 年少時 爲郡小吏 見吏舍廁中鼠食不潔 近人犬 數驚恐之 斯入倉 觀倉中鼠 食積粟 居大廡之下 不見人犬之憂 於是李斯乃歎曰 人之賢不肖 譬如鼠矣 在所自處耳 乃從荀卿學帝王之術(《史記》 卷八十六, 李斯列傳).

31) 能明其畫 因時推秦 遂得意於海內 斯爲謀首 作李斯列傳(《史記》 卷一百三十, 太史公自序).

반응에 독자들도 한계 동참하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방법은 결과적으로 형가나 이사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인물 됴됨이를 잘 부각시키고 있다. 형가의 전에는 그가 격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높은 이상과 고상한 인격을 가진 비범한 인물이며, 일에 임하여서는 치밀하고도 확신에 차있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등이 잘 나타나 있고, 이사의 전에는 그가 예지와 결단력에 빛나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지만 정치를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고 이해득실만을 따져서 행동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자신을 망치기도 했다는 것 등이 잘 나와 있다. 사마천은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형가와 이사의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객의 한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고 있고, 탁월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갖고 출세만을 지향하다가 몸을 망치고 마는 인간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고, 이로써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그러나 형가와 이사의 전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는 사실의 기록보다 인물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형가와 이사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귀착되고 있었다. 사실을 기록하기보다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보다 전형적 성격을 가진 인물을 창조하는데 더 주안점이 두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형가와 이사의 전을 읽으며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기보다 그들의 행위와 인간 됴됨이에 감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기술이 더 이상 사실을 기록하고 마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의 영역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물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사마천은 자신이 화자(話者)로 참여하여 누가 어떻게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필요한 경우 장면제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장면제시의 방법은 인물들이 행동과 대화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이미 《춘추좌씨전》에서 등장하여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역사에서의 사건과 인물은 모두 과거의 것으로서 우리는 이들을 지나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장면제시의 방법이 사용되자 이들은 지금 우리 앞에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다. 문학은 대상을 언어로써 모방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전통적인 주장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문학은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본질적 속성으로 갖고 있다. 있는 그대로 재현시킨다는 것은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있는 듯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학은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이것을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사마천은 의(義)로운 일을 하다가 궁형을 당하는 참담한 좌절을 경험하였지만 오히려 분발하여 《사기》의 저술에 몰두했다. 그래서 사마천이 겪었던 참담한 정서적 반응은 《사기》의 저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열전’ 70권은 좌절을 경험한 사마천이 천도(天道)를 따져 묻고 싶은 격양된 심정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사기》를 역사의 기록물로서 머물게 하지 않고 풍부한 문학성을 갖춘 저서로 만들었다. 그 결과 전(傳)은 경전을 해설하기 위한 양식에서 개인의 사적(事跡)을 기록하는 양식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문학의 양식으로 전이(轉移)되어질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았던 것이다.

## V. 맺음말

전(傳)은 경전을 해설하기 위한 양식으로 등장한 뒤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전(傳)이 역사서술의 한 양식으로 자리잡으며 어떻게 문학성을 획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데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의 발생과 변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

논의를 한정시켰을 때, 전은 기록성과 문학성을 두 본질적 속성으로 갖고

있었으며 좌구명이 편찬한 《춘추좌씨전》에 이어 사마천의 《사기》에 이르는 문학의 양식으로 전이(轉移)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문학성을 풍부하게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논의의 결과였다.

전의 문학성은 전이 사건의 시작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을 기술하게 되면서 서사적 즐거리를 지닌 서사적 구조물로 나타나고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그리고 사관(史官)의 정서적 반응이 역사의 서술에 영향을 주며, 전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드러내려 하고,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반응하는 인간들의 행위와 그들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주며 전형적인 성격의 인간상을 창조함으로써, 그리고 역사에서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시켜 보여주게 되면서 획득된 것이었다.

전의 문학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전을 연구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를 우리의 전에 적용시키는 데에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이어지는 글을 통해 보충될 것이다.

**주제어** : 전(傳), 기록성, 문학성, 주관의 개입, 사회적 관계, 정서적 반응, 서사적 즐거리, 서사적 구조물, 전형적 성격, 사실의 재현.

## 참고 문헌

- 竹書紀年  
 孔 子, 春秋  
 -----, 論語  
 班 固, 漢書  
 杜 預, 春秋左氏傳序  
 司馬遷, 史記  
 劉 勰, 文心雕龍

左丘明, 春秋左氏傳

高國抗, 《중국사학사》, (오상훈 외 2인 역), 풀빛, 1998.

김명덕 외 2인 편, 《중국문학사》, 청년사, 1990.

李宗侗, 〈中國 古代의 史官制度〉, 《中國의 歷史認識(閔斗基 編)》, 創作과 批評社, 1985.

※ 이 논문은 2002년 10월 31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  
이 심사하고 2002년 12월 6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  
정된 논문임.